

방언과 현대문학교육*

김혜영**

<차 례>

1. 서론
2. 표준어 형성의 메커니즘
3. 방언의 문학적 효과
4. 방언을 통한 문학교육
5. 결론

1. 서론

이 연구는 방언이 가진 생활, 문화, 제도적 특성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에서 방언의 위상과 역할을 점검하고 방언이 문학교육의 내용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방언은 분화 요인에 따라 사회 방언과 지역 방언으로 나뉘는데, 사회 방언이 사회적 요인—사회 계층·연령·성·종교·인종—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방언이라면, 지역 방언은 지역의 다름으로 인해 형성된 방언을 말한다.¹⁾ 이 연구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지역 방언이다. 지역 방언에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오랜 기간을 두고 형성해 온 독특한

* 이 논문은 “사회문화적 소통과 국어교육”이라는 기획주제로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제42회 국어교육학회의 주제 발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조선대학교 국어교육과

1) 이주행, 『한국어 사회 방언과 지역 방언의 이해』, 한국문화사, 2007, pp.4~5.

언어 표현 방식이 축적되어 있다. 이처럼 지역 방언이 특정 장소의 역사와 삶의 맥락 속에 존재하면서, 사회문화적 소통을 지향하는 언어라는 점은 문학텍스트에 나타난 지역 방언의 위상을 점검하고 그 교육적 방향을 성찰하는 일이 문학교육에서도 중요한 문제임을 시사한다.

문학은 허구에서 출발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현실의 맥락을 그 참조 대상으로 삼는다. 문학텍스트에서 시공간적 배경이나 인물의 성격, 정서, 사건 등에 대해 매우 사실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삶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재현해야 한다는 문학의 책무 때문이다. 이와 같이 특정 시대의 언어, 생활, 제도를 충실하게 재현함으로써, 문학텍스트는 방언이 당대의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작용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문학텍스트가, 국어학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나 문학적으로 접근하는 경우 모두 방언 연구의 대상 텍스트가 될 수 있는 것도 삶의 경험을 사실과 같이 그려내는 문학 장르의 속성과 관련된다고 하겠다.

방언 교육의 지향점은 방언이 사회문화적 소통의 효율적인 매개가 된다는 점에서 출발하여 적절하게 상황에 따라 방언과 표준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데 있다. 하지만 서울과 서울 이외의 지역이라는 공간 분할이 존재하고, 그러한 공간의 차이가 문화적 수준에 대한 인식의 차별성을 생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방언의 가치를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방언 교육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삶의 구체성을 재현하면서 리얼리티와 언어의 미학을 추구하는 문학을 매개로 삼아 방언의 사회문화적 소통 양상을 효율적으로 구현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문학교육은 문학문화의 향유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삶의 총체성을 체험하게 하고, 상상력을 기르며, 언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그 목표로 삼아왔기 때문에 방언의 문제를 사회문화적 소통 차원에서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방언 연구의 경향을 조명하는 작업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최근의 방언 연구는 정책적 차원을 중심으로 표준어 구축에 대해 논의하면서, 그 가운데 권력이나 제도가 표준어 제정 과정에서 특정한 언어를 선택하고 배제하는 측면에 주목하고 있다. 즉 방언

과 표준어의 이분법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것을 유지하는데 작용하고 있는 메커니즘은 무엇인가에 관심을 두고, 표준어가 근대 국가의 성립과 함께 구축된 가치중립적 시스템의 일부라는 점을 탐색해 나가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논의는 그동안 주변적인 것으로 배제되어 왔던 방언을 재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연구 경향을 살펴보는 일은 방언의 위상을 점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본다.

2. 표준어 형성의 메커니즘

한국의 경우, 표준어가 체계화된 것은 1933년이지만, 자국어 글쓰기에 대한 자각이 시작된 시기는 1876년 병자수호조약 이후부터이다. 1876년, 일본으로부터 조약 체결 및 사신 파견에서 근대 국가의 체모를 갖추도록 요구받은 것을 시작으로, 1984년 갑오개혁과 관련하여 고종이 공포한 칙령에서 본격적으로 국문, 국한문 사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된다.²⁾ 이후 조선어학회가 <한글맞춤법통일안>를 발표하고, 이어 표준어 사정을 시행하면서 표준어는 조선어를 근대적인 민족어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 언어로서 자리잡게 된다. 표준어의 제정 및 정착 과정은 한자 중심의 표기에서 국한문혼용체, 국문체로 이행하는 과정과 맞물려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언문일치 체제의 확립이라는 문제와 연결된다.

먼저 국한문혼용체란 한자가 존재하는 어휘는 한자로 쓰지만 통사론적 구조와 부속 성분, 서술어는 국문을 사용하는 방식의 글쓰기 형태로서, 일반적으로는 한문에서 순국문체로 이어지는 과정의 과도기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1896년 서재필에 의해 창간된 『독립신문』이 국문체를 표방하고는 있으나 1898년 창간된 『황성신문』, 1905년 제발행된 『대한매일신보』가 국한문체를 채택하였다는 것을 보면, 국한문체가 여전

2) 황호덕, 「한국근대형성기의 문학 배치와 국문 담론」, 성균관대 박사논문, 2003, p.22.

히 이 시기 핵심적인 표기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권 보드래는 이 시기 국한문체가 국민의 언어로 제안되고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국한문체를 주장하는 논자들은 한문의 폐해를 계속 공격하는 한편, 국문에서 시작하여 한문까지 나아가는 교과를 구상함으로써 국민의 계몽을 수행, 지식의 상층과 하층을 모두 계몽의 대상으로 삼아 새로운 국민을 형성해 가려 하였다고 본다.³⁾

하지만 본격적인 의미의 국민 형성은 국한문혼용체에서 국문체로의 이행 과정에서 이루어진다고 하겠다. 국문체로의 이행은 주변인으로 존재하는 민중을 근대 국가의 주체로 끌어안으려는 의도와 관련된다. 국문을 중심으로 한 언어공동체는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언어를 사용한다는 의식을 내면화함으로써 민족 국가 성립의 토대를 형성하게 된다. 한자를 전근대적 언어의 표상으로 바라보는 시각, 한글을 중심으로 공동체의 언어를 정착시키고 확립시켜야 한다는 시각이 그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192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되어 되었고, 여러 방면에서 한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다.⁴⁾ 이혜령은, 한글 중심적인 논의 이면에 한글이 음성우월주의라는 서구적 보편적 시선을 만족시킨다는 점이 개입해 있다고 한다. 한글 중심주의에는 한글이 표음문자라는 점, 그리고 세계의 문자사를 돌이켜보았을 때, 문자는 상형문자 내지 표의문자에서 표음문자로 발전해간다는 식의 표음문자를 우월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⁵⁾

국한문혼용체에서 국문체로, 즉 말과 글을 일치시키려는 언문일치의

3) 권보드래, 『한국 근대소설의 기원』, 소명출판, 2002, pp.136~144.

4) 임형택은 소설을 중심으로 근대 어문의 실현 양상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국한문체에서 출발했던 근대소설이 한글 전용으로 선회한 것이 1924년이라고 본다. 동아시아 보편 언어의 질서에서 이탈, 민족 어문으로 이행하는 도정 상에서 출현한 국한문체가 한글 전용으로 나아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국문소설의 전통이 기반이 되었으며, 순 한글로 쓴 소설 문장이 의미 전달에 별 무리 없이 읽혔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근대적 국한문체가 안정적이지 못하였다는 점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임형택, 「소설에서 근대 어문의 실현 경로」, 『대동문화연구』 58집, 성균관대학교대동문화연구, pp.36~39.

5) 이혜령, 「한글운동과 근대어 이데올로기」, 『대동문화연구』 47, 성균관대학교대동문화연구, p.343.

이념은 표준어 제정을 앞두고 표기법 논쟁으로 이어진다. 문어의 규범을 만드는 표준어 제정을 위해서는 소리를 문자로 고정시킬 때, 소리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문자의 의미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를 확정할 필요가 있었다. 문혜윤에 의하면 이는 언문일치의 문제에 내재해 있는 두 가지 지향과 연관된다. 즉 소리나는 대로 쓰는 연철식 표기, 즉 표음주의 표기법을 지향하면서도 분리된 글 자체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측면에서는 문자에 내재한 법칙을 찾아 그 원형을 표시하는 분철식 표기인 표의주의 표기법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⁶⁾ 한글 맞춤법에서 표준말의 표기 방법을 ‘그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으로써 원칙을 삼는다’고 규정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처럼 표의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어문 체계가 확립과 함께, 언문일치의 방향은 문어를 구어에 가깝게 사용한다는 입장, 즉 한자를 한글로 대체한다는 목적에서 한글 표기법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하지만 한글을 표기하는 데 있어, 음성보다는 시각적 변별을 중심으로 음운, 어휘, 문법 체계가 먼저 정립되었기 때문에 구어적인 발화 형식은 시각 중심의 표기법을 준용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특히 표준어는 서울 중류층의 교양 있는 계층이 사용하는 언어에 맞춰져 있기는 하지만 실제 표준어가 준거로 삼고 있는 수준은 조선어사전편찬위원회 발기인들의 수준, 즉 대부분 외국 유학을 하고 돌아왔으며 식민지 사회에서 어느 정도 사회경제적 기반을 갖춘 부르조아적 민족주의자의 언어를 기반으로 삼고 있다⁷⁾는 점은 표준어와 일상적 구어와의 거리감을 실감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러한 논의에서 다수의 민중이 사용하는 말이 배제되고, 교양을 갖춘 사람이라면 갖추어야 할 이상적/인공적인 언어로서 표준어가 제정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식민지 조선의 경우, 부르조아 중간 계급이 서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옹졸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아닌 그 실체가 미미한 중간 계급의 말이 표준어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은 표준어가 민족주의적 지식인들의 이데올로기적 구성물이며 표준어의 지

6) 문혜윤, 『문학어의 근대』, 소명출판, 2008, pp.82~114.

7) 최경봉, 『우리말의 탄생』, 책과함께, 2005, p.84

역적 기반이 계급적 기반의 또 다른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⁸⁾ 그렇다면 이 시기에 이상적인 언어로서의 표준어를 제정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표준어의 제정 과정을 부르디외는 ‘자본주의 체제의 등장에 의한 시장의 단일화 및 의사소통 영역의 확대에 실질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보장하는 정치적 틀인 민족국가의 내적 통합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⁹⁾ 자본주의 사회의 도입과 함께 비롯된 교환 매체의 가치 중립성이 표준어 제정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근대 국민 국가가 성립하게 된 기반은 자본주의 체제이고 공간의 균질화를 통한 가치 중립적인 세계이다. 그런 점에서 균질적 교환 매체에 의한 가치 중립화의 실현이 국민 국가의 성립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된다. 표준어를 제정하게 된 배경에는 언어 역시 화폐, 도량형과 같은 균질적인 교환 매체라는 인식이 개입해 있다. 이는 표준어가 학교, 군대, 관공서 등에서 통용될 문어의 표준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설립되었다는 주장과도 연결된다.¹⁰⁾

보다 구체적으로, 표준어 형성을 촉발한 계기를 인쇄매체에서 찾기도 한다. 인쇄는 공적인 매체이기 때문에 표준화된 표기법이 요구된다. 또한 인쇄 매체를 통한 출판물은 대량 생산되어 대중적으로 확산된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는 표준어를 확산시키는 데 공헌하게 된다. 앤더슨은 시장을 통해 살포 가능하고 기계적으로 재생산된 인쇄어를 창조한 자본주의만큼 서로 연관된 다양한 지방어들을 집합하는 데 공헌한 것은 없다고 본다. 인간 언어의 숙명적인 다양성 위에 자본주의와 인쇄술이 수렴됨으로써 그 기본 형태에 있어 근대 민족을 준비하는 새로운 형태의 상상의 공동체가 형성될 가능성을 창조했다는 것이다.¹¹⁾

8) 조태린, 「계급언어, 지역언어로서의 표준어」, 『당대비평』 26, 2004, pp.82~83.

9) Pierre Bourdieu, *Ce que parler veut dire : l'économie des échanges linguistiques* ; Pans Fayard, 1982, pp.23~24. 조태린, 「계급언어, 지역언어로서의 표준어」, 『당대비평』 26에서 재인용

10) 이해령, 앞의 논문, p.340.

11) B. 앤더슨(윤형숙 역), 『상상의 공동체』, 나남출판, 2002, pp.73~76.

표준어의 제정에 따라, 지역에서 사용하던 방언은 비공식적인 언어의 자리로 밀려나게 된다. 표준어의 제정은 민족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데 작용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민중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공식적이 아닌, 중심이 아닌 언어로 내면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언문일치의 과정이 구어를 있는 그대로 문어화하는 것과는 별개로, 문어의 체계를 확립하는 문제에 초점이 맞춰짐으로 인해 문자언어는 음성언어와 교환 가능한 언어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소통 체계 안에서 작동되는 언어로 구축되었다는 점과 연관된다. 그 결과, 문자언어는 음성언어와 다른 소통 체계 안에서 운용되는 언어로 자리잡는다.

방언에 대한 관심은 그동안 문자언어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던 소통의 방향을 음성언어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문학텍스트 속에서 방언은 음성언어적인 표지를 살리기 위해 표준어의 범주 안에서는 찾기 어려운 표기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언은 문자언어와 음성언어의 경계에 자리잡고 있다. 표준어가 화폐, 기차와 같이 균질적인 교환, 소통 시스템으로서, 그동안에 이루어진 질적 영역을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한다면, 방언의 위상은 표준어의 정립 과정에서 배제된 부분, 다시 말해 경험의 질적인 영역을 담지하고 있는 언어, 가치중립적인 소환에 저항하는 언어로서의 자리매김이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방언은 문학텍스트 안에서 문자언어가 지향하는 이성 중심의 세계를 전복시킬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방언이 문학텍스트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3장에서는 문학연구 및 <문학>교과서에서의 방언 수용 양상을 점검해 본다.

3. 방언의 문학적 효과

표준어를 표현의 근간으로 삼으면서도 방언에 관심을 갖고 방언의 언어적, 미학적, 사회문화적 의미에 주목해온 것은 문학이다. 지금까지 문학

연구에서는 방언이 문학텍스트에서 활용되었을 때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 방언에 대한 문학적 접근이 주로 방언의 효과를 파악하는 데 국한되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문학텍스트 안에 수용된 방언이 이질적인 느낌을 준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이때문에 작가의 방언 활용 이면에 존재하는 의도를 찾게 되고, 그러한 의도를 방언 활용의 효과와 연결하게 된다. 문학연구의 이러한 경향은 <문학> 교과서에서도 유사하게 반복되어 나타난다. 문학연구에서 제시된 방언연구의 방향을 중심으로 <문학> 교과서를 분석해 본다.

문학연구에서는 문학텍스트에서 방언 활용을 통해 얻는 효과로, 시와 소설 공통으로 리얼리티¹²⁾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토속성¹³⁾과 공감대 또는 민족의식의 형성¹⁴⁾ 등도 방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시를 중심으로 운율이나 이미지 등의 효과¹⁵⁾에 대해 언급하기도 한다. 그런데 각각의 문학텍스트마다

- 12) 조춘희, 「박목월 시의 문체론적 고찰」, 『한국문학논총』 47, 2007, 장일규, 「호남방언과 서시문체—사회언어학적 시론」, 『한국문학이론과비평』 28,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5, 김용직, 「방언과 한국문학—문학작품에 나타난 방언의 문제」, 『새국어생활』 6, 한국국어교육학회, 1996, 윤영옥, 「『소라탄 가는 길』의 사회문화적 의미와 교육적 가치」, 『한국근대문학회』 14, 한국근대문학연구, 2006, 장창영, 「시어의 전략적 의미」, 『한국언어문학』 53, 한국언어문학회, 2004, 이근화, 「백석시의 고유명파 조선헌의 현장」, 『어문논집』 57, 2008.
- 13) 정구향, 「한국현대시에 나타난 토속의 세계」, 『새국어교육』 51, 한국국어교육학회, 1995, 윤여탁, 「문학교육에서 언어의 문제에 대한 연구—백석시의 언어와 세계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15, 심지현, 「오영수 초기소설에 나타난 토속의 양상」, 『국어국문학』 145, 국어국문학회, 2007, 전봉관, 「백석시의 방언과 그 미학적 의미」, 『한국학보』 98, 2000.
- 14) 윤여탁, 「문학교육에서 언어의 문제에 대한 연구—백석시의 언어와 세계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15, 장창영, 「시어의 전략적 의미」, 『한국언어문학』 53, 한국언어문학회, 2004, 김영철, 「현대시에 나타난 지방어의 시적 기능 연구」, 『우리말글』 25, 김윤희, 「『몸말』의 민족시학과 민족 젠더화의 문제—백석의 경우」, 『여성문학연구』 12.
- 15) 윤여탁, 「문학교육에서 언어의 문제에 대한 연구—백석시의 언어와 세계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15, 조춘희, 「박목월 시의 문체론적 고찰」, 『한국문학논총』 47, 2007, 고희진, 「방언의 시적 수용과 그 미학적 기능—영랑과 백석과 목월의 시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125, 2004, 김수림, 「방언—혼재향의 언어—백석의 방언과 그 혼돈, 그 비밀」, 『어문논집』 55, 민족어문학회, 2007.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가 다르고, 그 형식이나 표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문학텍스트에 방언이 활용되었을 때 얻게 되는 효과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문학텍스트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텍스트에서 작용하는 방언의 효과가 거의 동일한가의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만약 방언의 효과가 몇 가지 패턴으로 도식화되어 나타나는 것이라면, 각각의 문학텍스트에 나타난 방언의 효과를 찾는 일이 이미 정해진 답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는 것, 그 이상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을 <문학>교과서에 제시된 방언 관련 학습 활동을 통해 고찰해 보겠다.

1) 리얼리티의 심화

문학은 언어를 매개로 하여 삶의 모습을 미적으로 형상화하여 보여준다. 문학에서 언어, 삶, 미적 형상화는 문학성을 구현하는 중요한 변인이다. 그동안 문학텍스트에서 방언의 효과를 논의할 수 있었던 것은 방언이 삶과 언어를 매개하면서도 미적 형상화의 축을 담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문학텍스트 안에서 방언을 활용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것이 리얼리티이다. 문학텍스트에서 리얼리티란 이를 부연 설명하는 어휘들—입체감, 생동감, 구체성, 현실감, 직접성, 전형성, 실감, 현장성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 현실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의 재현과 연관된다.

방언을 통해 이러한 리얼리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방언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가장 가깝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일상을, 지역에서 지역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살아가며, 대개의 경우 지역의 언어인 방언이 이러한 소통의 매개가 된다. 대화는 문학 장르가 정립되던 시기부터 문학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문학텍스트 안에 대화가 제시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리얼리티의 여부를 문제 삼지는 않는다. 그런데 문학텍스트 안에 방언이 사용되었다는 것만으로, 리얼리티 효과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구어와 문어 사이의 거리감, 실제의 일상 담화와 문학텍스트 속 담화 간의 차이를 말해 주는 부분이다.

7차 국어과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문학교육에서 다루는 방언 관련 교육 내용은 적은 편이다. 문학교육에서 언어에 대한 접근은 주로 일상언어와 문학언어의 관계를 파악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방언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문학>교육과정에서 방언을 구체적인 교육 내용으로 다루고 있지 않은 까닭에, 교과서에서도 방언을 언급한 부분은 있지만 체계적인 내용을 갖춘 것은 아니고, 선정된 텍스트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언급하는 경향을 보인다. <문학>교과서에서 방언의 리얼리티 효과를 다룬 부분을 사례로 든다면, 아래와 같다.

㉠ 이문구의 「화무십일」(문학 상, 상문연구사, 강황구 외)

—문학작품 속에 쓰인 사투리가 주는 효과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 이문구의 「유자소전」(문학 하, 청문각, 최웅 외)

—이 작품의 문학적 성취를 보장한 요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전라도 방언의 탁월한 구사이다. 이 작품에서는 이러한 방언이나 비규범적 표현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알아보자.

㉢ 현진건의 「고향」(문학 하, 청문각, 최웅 외)

—이 작품에서 사투리를 사용하여 얻은 효과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문학>교과서에서는 충청남도 방언을 활용하여 그곳에서 살아가는 인물들의 모습을 짙진하게 그려내고 있는 이문구의 「화무십일」, 「유자소전」과 인물의 굴곡진 삶을 경상도 방언으로 풀어내고 있는 현진건의 「고향」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텍스트에서 방언을 활용해서 얻은 효과에 대해 묻고 있다. ㉠, ㉡, ㉢에서 방언은 리얼리티를 강조하는 경향과 관련된다. 그러나 방언의 리얼리티를 현실감, 생생함과 같은 표현의 층위에서 바라

보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소리의 유사성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어 방언이 지시하고 있는 맥락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있다. 이처럼 소리를 재현하는 차원에서 방언의 리얼리티 효과를 논의하는 양상은 이태준이 『문장강화』에서 언급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이태준은 작가 자신이 쓰는 말, 즉 지문은 표준어로 기술해야 하지만 대화는 방언을 써도 무방함을 언급한 바 있다.¹⁶⁾

작가 자신이 쓰는 말, 즉 지문(地文)은 절대로 표준어일 것이나 표현하는 방법으로 인용하는 것은 어느 지방의 사투리든 상관할 바 아니다. 물소리의 ‘줄줄’이니 새소리의 ‘삐국삐국’이니를 그대로 의음(擬音)해 효과를 내듯, 방언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요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이란 것, 그곳이 어디란 것, 또 그 사람의 리얼리티를, 여러 설명이 없이 효과적있게 표현하기 위해 그들의 발음을 그대로 의음하는 것으로 마땅할 것이다.

—이태준, 『문장강화』, 37

이태준에 의하면, 방언이 리얼리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의성을 표기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소리를 재현한다는 점에서 찾고 있다. 이와 함께 지문과 대화를 분리하여 방언의 사용은 대화에 한정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하지만 방언을 그 기표의 층위에서만 고려하는 태도, 다시 말해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변별하기 위한 표지로서 방언의 소리를 그대로 적는 일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 지역의 방언을 사용한다는 식의 환원적인 접근으로 인간과 그가 속한 사회문화적 맥락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에 주목하지 못하게 한다. 즉 발화의 지시적인 측면,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간과할 수 있다.

16) 이태준은 문장에서 표준어를 써야 하는 이유로 첫째, 널리 읽히자니 어느 도 사람에게나 쉬운 말인, 표준어로 써야겠고, 둘째, 같은 값이면 품 있는 문장을 써야겠으니 품 있는 말인, 표준어로 써야겠고, 셋째, 언문의 통일이란 큰 문화적 의의에서 표준어로 써야 할 의무가 문필인에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이태준, 『문장강화』, 깊은샘, 1997, p.36.

2) 토속성의 재현

토속성은 향토성이라고도 불리며, 특정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전통을 계승해 나가는 인물의 삶을 통해 구현된다. 토속성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전통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물의 모습을 삶의 원형으로 재구성한다는 점에 있다. 문학텍스트 가운데 토속성을 보여주는 텍스트들은 시간적으로 과거이고, 공간적으로는 농·어·산촌을 배경으로 삼고 있으며, 그곳에서 살아가는 인물들은 대부분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전통적인 삶의 모습을 형상화하기 위해 농·어·산촌이라는 공간에 맞는 언어를 배치하게 되는데, ‘그 곳에서 살아가는’ 인물을 그리는 데 사용되는 언어가 해당 지역의 방언이다.

㉠ 최명희의 『혼불』(문학 하, 교학사, 구인환 외)

—작품에 쓰인 방언의 역할을 알아보자.

—작품에 반영된 우리 민족의 삶을 생각해 보자.

㉡ 이청준의 『서편제』(문학 상, 민중서림, 김창원 외)

—작품을 읽으면서 떠오른 의문 사항을 질문 형식으로 적어보자.

—남도가 배경인데, 왜 인물들은 사투리를 쓰지 않을까?

위의 사례는 <문학> 교과서에 실린 방언 관련 학습 활동 가운데, 토속성과 연관되었다고 판단되는 문학텍스트와 그 활동이다. 『혼불』의 경우는 방언이 리얼리티를 재현하는 데에도 관여하고 있지만, 방언을 사용하는 계층이 하층 계급으로서, 민중의 삶을 방언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여 토속성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서편제』의 경우에는 이 문학텍스트가 토속적인 삶을 배경으로 삼고 있음에도 방언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주제의식의 전달에 있다고 함으로써, 방언이 주제의식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시각을 보여준다.

간통 사건이 질마재 마을에 생기는 일은 물론 꿈에 떡 얻어먹기같이 드물

있지만 이것이 어찌다가 주마담(走馬痰) 터지듯이 터지는 날은 먼저 하늘은 아파야만 하였습시다. 한정 없는 땡땡때에 쏘이는 것처럼 하늘은 왜—하니 쏘여 뚫서리가 나아만 했던 건 사실입니다.

‘누구네 마누라하고 누구네 남정네하고 붙었다네!’ 소문만 나는 날은 맨 먼저 동네 나팔이란 나팔은 있는 대로 다 나와서 ‘뽀왈랄랄 뽀왈랄랄’ 막 불러 젖히고, 쟁가리도, 징도, 소고(小鼓)도, 북도 모조리 가만 있지 못하고, 통기처 나와 법석을 떨고, 남녀노소, 심지어는 강아지 닭들까지 풍겨져 나와 외치고 달리고, 하늘도 아플 밖에는 별 수가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픈 하늘을 데불고 가축 오양간으로 가서 가축용의 여물을 날라 마을의 우물을 모조리 뿌려 메꾸었습니다. 그러고는 이 한 해 동안 우물물을 어느 것도 길어 마시지 못하고 산골에 있는 들판에 따로 따로 생수 구멍을 찾아서 갈증을 달래어 마실 물을 대어졌습니다.

—서정주, 「간통사건과 우물」

토속성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경우는 특정 지역의 풍물, 습관, 풍속, 정서 등을 통해 서이다. 서정주의 「간통사건과 우물」은 질마재라는 농촌을 배경으로 삼고 있으며, 그곳의 풍속과 함께 살아가는 인물들이 등장할 뿐만 아니라, 사건을 전달하는 시적 화자 역시 방언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토속성의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방언은 질마재 사람들처럼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고 자신의 운명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전달하는 데 효과적인 방식이 된다.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언어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기여해 온 방언은 한 지역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살아온 공동체의 존재를 가장 뚜렷하게 가시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언을 토속적인 분위기를 보완하는 언어 정도로 다루는 것은 토속성에 내재된 편향적 관점을 드러내준다. 토속성은 전통적인 문화와 농촌, 순박한 인물, 방언을 연속적인 것으로 바라봄으로써 형성되는 분위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토속성을 몇 가지 변인들의 유기적 조합으로 구성되는 범주로 제한할 때, 토속성을 재현하는 문학텍스트를 두고, 한편으로는 소박함, 순수함, 전통성을 대변한다고 말하면서 그 이면에서 어리석음, 상대적 낙후, 전근대성을 읽어내는 태도¹⁷⁾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 토속성이 하나의 분위기를 드러내는 조건인 한, 토속성이라는 개념

이면에 있는 미달의 흔적은 더욱 강화된다. 토속성 속에서 인물들은 운명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 방언은 운명 공동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구속이 되기 때문이다. 토속성을 하나의 분위기로 바라보는 관점의 배후에는 방언이 소리의 재현일 뿐이라는 시각이 개입해 있다. 방언 속에 담긴 인물들의 지향들에 관심을 둔다면, 그 억양에 주목한다면, 토속성이란 억압과 자유, 순응과 저항이 경합/공존하는 장이 될 수 있다고 본다.

3) 기법 층위의 변화

문학텍스트의 방언은 리얼리티나 토속적인 효과 외에 문학의 기법적인 측면에 관여하기도 한다. 방언을 기법적 차원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방언의 억양, 리듬감, 음의 고저, 장단, 음상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문학텍스트의 형식적 조건에 맞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시어를 선택하는 과정은 시텍스트 내의 유기적인 결합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정교하게 이루어진다. 유사한 의미를 갖는 다양한 어휘군 가운데 가장 적절한 어휘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방언과 표준어를 사이에 둔 선택이라면, 무엇이 그 선택의 기준이 될 것인가에 대해 숙고하지 않을 수 없다. 방언과 표준어 가운데 방언이 선택되었다고 할 경우, 방언을 사용하는 일이 시텍스트의 창작 과정에서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미적 효과의 어떠한 측면을 고려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문학> 교과서에서는 김소월과 박목월의 시를 중심으로 방언이 시에서 어떠한 표현 효과를 낳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

㉠ 김소월의 「접동새」(문학 상, 교학사, 김대행 외)

—‘아우래비’, ‘불설워’ 등은 이 시의 분위기를 느끼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이야기해 보자.

—이 시에 수용된 순 우리말의 의미와 정감에 대해 말해 보자.

㉠ 박목월의 「이별가」(문학 상, 교학사, 김대행 외)

시에서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 ‘뽕라카노’를 사투리가 아니라 표준어로 사용했다면 시의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졌나 이야기해 보자.

- 화자가 ‘오나 오나 오나’를 구어가 아니라 문어체로 사용했다면 시의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졌을지 생각해 보자.

㉠과 ㉡에서는 시텍스트에서 방언은 시의 분위기와 연관된다는 점을 전제하고, ‘아우래비’, ‘불설위’, ‘뽕라카노’ 등의 방언을 사용하여 어떠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다. 유사한 의미를 가진 언어들 사이에서 특정 어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언어에 대한 감수성이 필요하다. 시텍스트의 경우, 언어에 대한 감수성을 구성하는 요건에는 억양, 리듬감, 음의 고저, 장단, 음상 등을 중심으로 한 감각이 있다. ‘아우래비’, ‘불설위’, ‘뽕라카노’ 등과 같은 방언과 경쟁한 시어들은 무엇이었나를 생각해 보고, 이들 방언이 선택된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과정을 통해 시어로서의 방언이 가진 미적 효과를 파악하게 된다.

방언은 해당 방언 사용 집단의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하나의 방언 속에서 그 어휘가 지칭하는 의미, 그 어휘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사소통 맥락, 그 어휘가 갖고 있는 사회문화적 의미 등을 파악해야만 시어로서의 함축적 의미를 수용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방언을 그 미적 효과의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일은 리얼리티, 토속성 등과 같은 거대 개념의 그물코에는 포획되지 못한 세부적인 현상들을 다룰 수 있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4. 방언을 통한 문학교육

문학교육에서 방언과 관련하여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방언이 소

통의 과정에서 사회문화적 맥락의 중요성을 고려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방언이 가진 사회문화적 소통의 양상은 문학 텍스트를 통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문화적 소통이란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고려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사회문화적 소통의 관점에서 볼 때 언어는 의사소통의 체계일 뿐만 아니라 그 언어가 사용된 사회문화적 공동체의 관습, 가치관, 이데올로기와 연관되며, 개인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제가 된다. 사회문화적 소통 능력이란 특정 사회문화 속에서 자신을 이해/표현하는 능력이며,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타자를 이해/표현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방언은 언어와 문화의 접점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방언을 중심으로 한 소통은 언어와 문화, 주체를 상호 연관된 것으로 바라보게 한다. 곧 방언은 특정 지역 안에서 성장한 주체를 문화적 주체로서 자리매김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역의 문화—지역 공동체의 담화 관습, 사회적 규범, 이데올로기 등—로 안내한다. 이와 함께 방언은 지역, 문화의 경계를 외부/내부, 중심/주변으로 나누는 이데올로기를 의심하고 해체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문학교육은 인간에 대한 이해, 다시 말해 인간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으며, 어떠한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하는가로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문학교육의 목표가 방언을 통해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1) 개인과 공동체의 발견

문학교육은 자기 이해와 타자 이해를 중요한 교육의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방언은 인간을 자신이 속한 사회문화적 맥락과의 연계 속에서 바라보게 함으로써 고립되고 소외된 개인을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 위치시킨다.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개인과 공동체의 연관 관계보다는 개인의 주체성을 강조하게 되고, 각각의 개인은 고립되어 존재하는 경향을 보인

다. 현대사회의 공동체 결속력은 개인이 동질감을 느낄 만큼 견고하지 못하다. 공동체는 과거,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자리잡게 되고, 자립적인 존재로서의 개인은 공동체로부터 벗어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처럼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기든스는 장소귀속탈피(disembodding)로 설명한다. 시공간의 분리와 표준화된 사회적 활동은 하나의 작용을 특정 맥락의 현상으로 귀속하는 것을 차단한다.¹⁸⁾ 전통 사회는 시간과 공간이 구체적인 장소¹⁹⁾에서 결합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장소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시간과 공간의 분리, 시공간의 균질화 등은 장소성의 상실을 가져오고, 더 이상 장소에 귀속된 존재가 아닌 인간, 이것이 현대인의 표상이다. 비록 균질화된 시공간 의식으로 인해 사회와 개인의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은 없는가 하는 성찰이 필요하다. 장소의 상실은 장소적 터전에서 살아온 공동체의 상실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장소는 공동체 경험의 기반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장소의 관계를 점검해 보는 일은 다름 아닌 인간과 공동체의 관계를 모색하는 일로 이어질 수 있다.

자니라고 못 봤지만, 보나마나 흥성만이 그 친구였을 거여. 고급 레스토랑을 경영하는 마느래 덕분에 늑바탕에 늘어진 개 팔자가 된 녀석이지. 그리 짱어도 으레 재경 동창들 모임 때마다 그동안 서울 것들 틈새에서 주눅이 들어 맥을 못 추던 사투리란 놈이 느닷없이 별떡별떡 일어나 목구멍 배깅으로 질펀히니 쏟아져나오는 바람에 너도나도 고향 말씨 경정을 벌리니라 야 단들인디, 오늘은 졸업헌지 사십년 만에 모교를 첫 공식 방문하는 특별행사 날이라 흥분을 해서 그런지 고향땅이 차츰 가까워올시라 사투리도 점점 우심혀지는 것 같다. 거그다 비허면 서울말 승내에 아직도 빈틈없는 인철이 너는 참 재주도 용타. 그것 그렇고 우리 동창들 간에 개차반으로 유명쨌헌 해

18) A. 기든스(이윤희외역), 『포스트모더니티』, 민영사, 1991, pp.31~42.

19) 이 논문에서는 장소, 공간, 지역, 세계 개념을 서로 유사하면서도 차이를 지니는 개념으로 보았다. 공간이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추상적인 범위의 의미를 지닌다면 장소는 공간에 주체가 거주한 경험이 녹아 있는 곳으로 규정하였다. 행정상, 지리상의 의미를 가질 경우 지역을 사용하였고, 세계는 인간이 처해 있는, 둘러싸고 있는, 마주하고 있는 것으로서의 대상의 의미를 지닌다.

식이랑 성만이라도 몰라보는 것 보니까 어째 조개 수상허다? 인철이 너, 내 이름이 뭔지나 알고 있는 거냐? (pp.10~11)

가만 있자, 차내 분위기가 좀 전하곤 땀판으로 달라진 것 같잖아?
뭐가?

논산을 지난 뒤부터 고향 사투리가 갑자기 부쩍 더 심해졌어!

당연히, 고향이 불리는 소리가 아까보담 훨씬 더 가깝게 들리기 시작했
달일 거여. 시방 저 친구들은 고향이 마구잡이로 잡아댕기는 심에 꿈쩍없이
끌려가고 있는 중이여.

—윤홍길, 『소라단 가는 길』, pp.18~19

이 소설텍스트에서 인물들은 고향이 가까워짐에 따라 고향의 방언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진다. 이처럼 장소의 이동에 따라 그 상황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는 양상을 보면, 장소가 언어와 주체를 통제하는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물리적 공간과 그 공간을 이용하는 주체, 그 둘을 매개하는 다양한 권력의 문제가 녹아든 문화 지형이 우리의 공간에 대한 문화정치학 연구의 실천 지형이라고 본 이무용의 논의를 뒷받침해 준다. 여기서 공간과 권력의 지형은 공간을 생산하고, 지배, 통제하는 사회 권력이 작용하는 지형이고 공간과 주체의 지형은 주체들의 공간에 대한 해석과 이용, 의미부여, 재현의 지형이며, 주체와 권력 지형은 주체들(세대, 계층, 인종, 종족, 젠더)간의 권력 관계와 정체성의 정치가 이루어지는 공간의 재생산·생성의 지형이다.²⁰⁾

중요한 것은 권력이 장소에 거주하고 있는 인간의 언어만을 통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권력은 주체의 방언을 통해 소통될 수 있는 기억을 억압한다. 중심과 주변, 서울과 지방의 지역적 구도는 배제와 차이의 권력 관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 구조를 지배하게 된다. 지역적 불평등으로 인해 생겨나는 차이는 단지 정치·경제적인 측면에 국한되지 않는다.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

20) 이무용, 「장소를 통한 문화의 소통 : 공간의 문화정치와 장소 만들기」, 『인문학연구』 14, 경희대학교인문학연구소, 2008.

에 새겨진 차이의 표지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상황에까지 이어지게 된다. 주체는 방언 사용이 자신을 장소고착적 존재로 노출시키면서, 권력 관계에서 열등한 위치에 서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방언 기억을 통제한다. 이런 점에서 방언은 일종의 언어-권력-주체의 관계를 보여준다.

문학텍스트에서 방언은 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언어를 만나고 느낄 수 있게 해 준다. 방언은 개인의 유년 시절 언어이며, 부모의 언어, 조부모의 언어이기 때문에 방언은 가족 공동체, 친족 공동체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 준다. 방언 속에서 주체는 고립된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장소와 연관된 존재, 공동체와 연관된 존재로 자리매김되어 새로운 의미의 정체성을 부여받는다. 방언은 자신이 속해 있는 언어 공동체를 확인하도록 하여,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위상을 회복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또한 문학텍스트의 방언은 문화적 다양성을 구현하는 방향을 열어줄 수 있다. 원은 낮은 정체성과 낮은 감정의 상태를 극단적이고 또한 자신의 삶의 관점에 있지 않는 방식으로 경험하는 것, 바로 이것이 감정이입적인 수용 방식을 적절하게 응용한다는 면에서 문학이 기능적으로 이용된다는 증거라고 본다.²¹⁾ 원은 감정이입은 특히 문학과 그 수용에서 빈번히 경험할 수 있는데, 이 경험은 단순히 타자의 입장에 몰입되거나 타자의 입장을 자신의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입장을 다양한 시각에서 시도해 보는 것이다. 이 때 중요한 것은 타자의 입장에 대한 다양한 시도는 현실세계와는 달리 그 결과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타자 경험을 활성화시키고 심화시킨다는 의미에서 문학과 그 수용은 문화간 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한 하나의 가능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

방언은 언어와 문화를 결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어와 문화의 이해를

21) Erich, Schon : Die Entwicklung Literarischer Rezeptionskompetenz, Ergebnisse einer Untersuchung zum Lesen bei Kindern und Jugendlichen, SPIEL9, H.2. 1990. S.229~276. Hier, S.262, 김용현, 「글읽기의 효용성에 관하여 : 문화간 소통 능력을 중심으로」, 『독일어문학』 43에서 재인용.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처럼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문학텍스트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일상적인 삶을 재현하고 있는 문학텍스트는 서로 다른 문화의 소통을 가장 자연스럽게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창조의 가능성은 합리적 소통과 투명한 이해가 아니라 이질적인 문화의 충돌을 통한 소통의 일탈과 비대칭으로부터 만들어진다는 방식의 입장 선회가 필요한 것인지도 모른다. 텍스트의 창조성을 본질로 하는 공통의 문화는 고급/저급, 생산/수용, 중앙/지역의 이분법을 재구성할 잠재력을 갖는다. 단절과 갈등은 지배와 저항, 주체화와 타자화의 메커니즘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분법을 구성하는 문화적 정의를 재생산할 뿐이기 때문이다.²²⁾

2) 사물과 세계에 대한 교감 능력 회복

인간이 장소와 관련을 맺는다는 것은 장소 안에 거주하는 것이며, 장소와 함께 경험하고, 장소와 소통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푸 투안에 의하면 인간에게 장소는 생물학적인 필요가 충족되는 가치의 중심이다. 친밀한 경험은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자리잡은 것이어서 그것에 형태를 부여할 말을 찾아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며, 친밀한 장소는 기억의 심연 속에 새겨져 있는 것이며 각각의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만족감을 준다²³⁾고 한다.

아배는 타관 가서 오지 않고 산(山)비탈 외파른 집에 엄마와 나와 단들이
서 누가 죽이는 듯이 무서운 밤 집 뒤로는 어느 산(山)골짜기에서 소를 잡아
먹는 노나리꾼들이 도적놈들같이 쿵쿵거리며 다닌다

날기명석을 저간다는 닭 보는 할미를 차 굴린다는 땅 아래 고래 같은 기

22) 박해광, 「문화와 소통 : 전달모델에 대한 검토」, 『한국사회학회논문집』, 한국사회학회, 2005. p.422.

23) Yi-Tu 푸안, 구동희 역, 『공간과 장소』, 대운, 1995, p.16, p.220, p.226.

와집에는 언제나 니차떡에 청밀에 은금보화가 그득하다는 외발 가진 조마구 뒷산(山) 어느때도 조마구네 나라가 있어서 오줌 누려 깨는 재밤 머리말의 문살에 대인 유리창으로 조마구 군병의 새까만 대가리 새까만 눈알이 들어 다보는 때 나는 이불 속에 자즈러붙어 숨도 쉬지 못한다

또 이러한 밤 같은 때 시집갈 처녀 막내고무가 고개 너머 큰집으로 치장감을 가지고 와서 엄매와 둘이 소기름에 찜심지의 불을 밝히고 밤이 들도록 바느질을 하는 밤 같은 때 나는 아룻목의 삿귀를 들고 쇠든밤을 내어 다람쥐처럼 밝어 먹고 은행 여름을 인두불에 구워도 먹고 그러다는 이불 위에서 광대넘이를 뒤이고 또 누워 굴면서 엄매에게 웃목에 두른 병풍의 새빨간 천두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고무더러는 밝는 날 멀리는 못 난다는 메주라기를 잡아 달라고 조르기도 하고

내일같이 명절날인 밤은 부엌에 찌뚫하니 불이 밝고 솥뚜껑이 놀으며 구수한 내음새 곰국이 무르꺾고 방 안에서는 일가집 할머니가 와서 마을의 소문을 퍼며 조개송편에 달송편에 쾨두기송편에 떡을 빚는 곁에서 나는 밤소팔소 설탕 든 콩가루소를 먹으며 설탕 든 콩가루소가 가장 맛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얼마나 반죽을 주무르며 흰가루 손이 되어 떡을 빚고 싶은지 모른다
—백석, 「고야(古夜)」, 부분

백석의 시에서 장소는 시적 화자 개인적인 장소이고, 그 장소와 관련된 기억도 개인적인 경험이다. 하지만 백석의 시에 나타난 ‘노나리꾼’, ‘날기명석’, ‘조마구’, ‘재밤’, ‘삿귀’, ‘쇠든밤’, ‘광대넘이’, ‘천두’, ‘쾨두기송편’ 등 평북 정주의 방언은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살았던 사람들에게 보다 심도 있게 소통될 수 있다. 공동체의 뿌리는 특정 장소이고, 특정 장소는 그 장소만의 고유한 풍습, 전통 등의 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방언은 장소와 연결된 문화를 환기시키는 역할도 하지만 한 장소의 문화를 다른 장소의 문화와 변별시켜주는 표지 역할도 한다.

중요한 것은 방언을 통해 환기된 장소에 대한 경험이 민족적 공동체의 경험으로 확장되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백석시의 개인적인 경험은 해당 지역의 풍속이나 방언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의 지역적 경험으로 전환

될 수 있다. 그런데 평북 정주의 방언을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백석의 시에 공감하는 기제는 어디에 있을까? 개인의 경험이 지역의 문화와 만나게 되고, 지역의 문화가 민족의 문화로 전개되는 것은 공통감의 확보를 통해 가능하다. 그렇다면 공통감이란 무엇이고 방언은 지역적인 구분을 넘어서서 어떻게 공통감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일까?

이 연구에서는 그 공통감의 기원을 세계 및 사물과의 교감 능력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교감은 사물이나 세계를 유용성의 논리, 개념화의 산물로 보지 않고 이미지로 바라본다. 사물이나 세계가 주체와 교감한다는 것은 사물이나 세계를 감각적 이미지의 총체로서 만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들레르는 교감을 설명하면서 감각과 감각, 대상과 대상, 인식 주체와 대상 사이에서 자신들이 고유하게 지니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와 진실을 서로 교환하고 일치시키는 현상이라고 한다.²⁴⁾ 그러니까 사물이나 세계와의 교감이란 사물이나 세계를 유사성에 의해 인식하고, 그로부터 동질감을 그 소통의 전제로 삼는다.

사물과 세계에 대한 교감이 방언을 통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방언이 고향의 언어라는 점과 관련된다. 바슐라르는 물질적 상상력의 기원을 고향에서 찾으면서, 고향은 공간의 넓이라기보다는 물질, 즉 화강암이나 흙, 바람, 건조함, 물이나 빛이라고 본다.²⁵⁾ 바슐라르의 논의처럼 고향의 물질이 상상력을 추동하는 힘으로 작용하게 되는 이유는 고향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고 주체가 거주하는 장소, 주체에 의해 지각되고 체험된 장소로서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²⁶⁾ 고향에서 만나는 사물 하나하나를 모두 축

24) 박기현, 「낭만주의 상상력 연구—코울리지와 보들레르」, 『불어불문학연구』 제56집, 2003, p.181.

25) G. 바슐라르, 이가림 역, 『물과 꿈』, 문예출판사, 2004, p.21.

26) 바슐라르는 인식의 유일한 근원을 감각에서 찾고 있으며, 기억·사고·판단·추리 등 모든 것을 그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고, 자아도 기억에 떠올려지는 감각의 총체라고 한 콩디아크에 기대어 개인을 일반적인 여러 인상의 총체라기보다는 특수한 여러 인상의 총체로 규정한다. 백석의 시의 방언은 어린 아이가 경험을 경험한 그 시기의 언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체험된 감각으로서 특수한 여러 인상들을 떠올리기에 적합하다.

적된 기억 속에 존재한다. 하지만 그 사물은 어떤 계기를 통해 불러내지 않으면 의식 위로 표면화되기 어렵다.²⁷⁾

방언은 고향과 관련된 잠재된 기억을 불러내는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방언은 사물과 세계에 대한 교감 능력을 회복시켜준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방언은 언어가 인간의 삶을 재현하고 전달하는 도구로서 작용하기보다는 삶과 밀착되어 신체에 각인된 경험의 층위를 전달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방언을 통해 환기된 정서는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를 전제하지 않고, 교감과 감응, 공감과 같은 일치감 혹은 동질감의 느낌과 연결된다.

백석 시 「고야」의 시적 화자는 고향에 대한 회상을 통해 몇 가지 형태의 집이라는 장소를 기억해 낸다. 시적 화자의 기억 속에는 ‘조마구네 나라’와 나란히 존재하는 공포스러운 ‘산비탈 외따른 집’이 있는가 하면, 충만한 즐거움으로 기억되는 ‘큰 집’이 있다. 시간적 배경은 밤으로 동일하지만 서로 다른 장소에 따라 기억되는 정서가 다르다. 방언은 장소를 그 때 그 장소에서 느꼈던 정서 그대로 재현하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방언이 과거의 정서를 환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방언 자체가 사물의 교감이 가능했던 시기의 언어이면서 교감을 가능하게 해주는 언어이기 때문이다. 백석의 시는 과거의 장소를 그 때 사용하던 방언으로 표현할 때, 과거의 기억은 당시의 감각적인 분위기, 느낌까지 그대로 재생됨을 보여준다.

G. 바슐라르, 이가림 역, 위의 책, p.20.

27) 본래 인간은 언어를 매개로 하여 세계에 거주한다. 언어란 일차적으로는 자신이 속한 세계 안에서 의사소통의 목적을 지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언어가 보여주는 대로 세계를 구성하고 이해한다는 점에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인간이 바라보는 세계는 언어와 분리하여 객관화시킬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언어 속에서 세계를 살아간다.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서로 다른 세계의 구성이 가능하다. 이러한 시각에 의하면 방언에 대해서도 다른 입장을 취할 수 있다. 방언이 하나의 매체로서 세계를 구성해내고 있다는 시각이 그것이다. 다시 말해 방언이 어떠한 상황이나 사물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방언의 사용과 함께 돌연 불러나오는 세계가 있다는 것이다.

3) 이데올로기 비판

문학텍스트 안에서 인물은 그 인물이 속한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구체적인 형상을 부여받았을 때 리얼리티를 구현할 수 있다. 인물은 자신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배경을 객관적인 대상처럼 여길 수 없다. 특정한 사회문화적 배경이 인물의 성향을 규정하는데, 그 인물이 그러한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살아왔다는 사실은 방언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된다. 방언은 인물을 사회문화적 배경과 함께 다룸으로써 인물과 그 인물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배경을 서로 연관된 것으로, 하나의 지평으로 보여준다. 이처럼 배경, 인물, 행동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 문학텍스트의 리얼리티를 해명하는 개념이 전형성이다. 문학의 리얼리티는 전형적 상황에서의 전형적 인물의 관계를 통해 드러난다.

문학텍스트에서 방언을 사용하는 인물은 대부분 서민 계층으로서 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 나간다. 도시의 주변부이거나 농어촌을 배경, 그곳에서 살아가는 인물, 그들이 사용하는 그 지역의 방언이 자연스러운 설정처럼 수용되는 것은 이러한 구도가 전형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질문의 내용을 ‘문학텍스트에서 방언을 사용하는 인물은 누구인가’에서 ‘문학텍스트에서 방언을 사용하지 않는 인물은 누구인가’로 바꿔보면 리얼리티 효과 이면에 자리잡고 있는 이데올로기를 살펴볼 수 있다. 지역 출신이면서 학식이 있고 권력을 가져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인물들은 거의 방언을 사용하지 않는데, 그들은 왜 방언을 사용하지 않는 인물로 그려졌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가) “무슨 토론을 하시던 중이었나요?”

시국상황에 관한 것일 거라고 짐작하며 김범우는 물었다.

“뭐, 토론이랄 게 있습니까. 백 날 떠들어파야 아무 소용 없는 소릴 또 지껄인 거지요.”

이명준은 자조적인 웃음을 흘리며 답배를 빼들었다.

“이 선생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 얘기가 그렇게 쓸데없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 선생은 공산주의가 싫어 목숨을 걸고 삼판선을 넘어온 월남인들의 애국심을 인정하지 않았고, 공산주의 성향을 가진 소작인들을 오히려 두둔했습니다. 그런 사고방식은 교육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선우진은 정색을 하고 말했다. 그는 어느새 본격적인 토론의 자세를 갖춘 셈이었다. (25~26)

나) “머시가 요상해? 요상헌 것이 있으면 고것부터 썩게썩게 보고혀. 급헌 내 성질 몰라서 뜸들이고 있어?”

염상구는 눈알만 이쪽으로 돌렸을 뿐 자세는 그대로였다.

“머시가 요상헌고 허니, 위디가 아픈 무신 병이간디 하로에 두세번씩 병원에 땡기든 병이 위쩌크름 허서 발을 딱 끊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것이구만 요. 병이야 시나브로 낫는 것이제 칼로 무시 찔르대기 딱 낫는 것이 아니잖은가비요? 하로에 두세 번씩 병원에 땡긴 것도 요상시럽고, 발을 딱 끊은 것도 요상시럽고……꼭 무신 야로가 있기는 있는 것 겠은디……”

—조정래, 『태백산맥』 3, 31

위의 사례에서 보듯, 문학텍스트에서 방언은 인물의 전형성을 드러내어 리얼리티를 효과적으로 구현하려는 목적보다는 인물들 사이의 가치관, 계층, 신분 관계를 분명히 하면서 대립적인 구도를 형성하려는 표지 역할을 하고 있다. 가)는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이 벌이는 일상적인 대화의 상황으로, 이들은 모두 정확한 표준어를 사용하고 있다. 나) 염상구와 청년단원 오철성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로 방언 중심이다. 가)와 나)는 지식인이라는 표지가 방언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방언은 문학텍스트에서 인물 간의 대립적 특성을 강조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방언이 사용되는 계층이나 신분 등을 고려할 때, 방언 사용에 관한 편견을 고착시킬 수 있다. 방언을 사용하는 인물과 그렇지 않은 인물은 몇 가지 표지, 예를 들면 교육, 세련, 교육, 돈 등의 유무와 관련되면서 시공간적인 맥락과 인물의 상호 작용의 측면을 상당 부분 희석시키게 된다.

기존의 문학연구나 문학교육에서는 문학텍스트의 방언 사용이 권력 구조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잠재적인 계급 차별, 성 차별 등을 재생산하

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기울인 편이다.²⁸⁾ 장희권은 로컬리티가 장소성에 배어있는 다양한 층위의 관계성이라면, 로컬리티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 연구는 장소를 지배하는 힘과 더불어 그 장소를 재현하는 힘의 관계, 장소에서 재현된 표상들 간의 힘의 관계도 관찰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한다. 힘들의 관계에서 주체/객체, 주변/중심, 언표(행위) 주체의 역학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문학교육에서도 사회의 권력 관계에 의해 방언이 재현됨과 동시에 그 방언의 재현이 권력 관계를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는가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²⁹⁾

4) 대상에 대한 지향성

문학텍스트에서 방언을 추동하는 힘은 공동체의 기억이다. 그런 의미에서 방언에는 다양한 말들이 교차하고 있다. 방언을 다양한 말들이 혼용으로 파악할 때, 방언으로 발화하는 행위의 실천적 힘이 감지된다. 아래의 예문 가)는 경상도 진영 지역을 중심으로 나)는 전라도 군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방언을 사용하는 인물들을 등장시키고 있다. 꼼꼼하게 읽어보면 실제 발음되는 방언에 가깝게 기술하기 위해 표기법을 무시한 채 문자언어로서는 낯선 언어들을 만들어낸다.

가) “갑득이가 하도 배고푸다고 짜서 버얼씨 왔어예. 그 자숙은 아까 장바닥서 좇어 온 외곱데기를 씹고 있더라. 나는 하도 더부서 찬물만 마셨어예. 그랬더니 배가 폴랑폴랑 안 잡니껴.”

“알았다. 가자, 이 빌어먹을 강새이(강아지) 같은 자숙. 찌쯔.”

“심(힘)이 있어야 일어나지려예.”

28) 김미혜는 방언의 효과로 중심부 문화에 대한 저항을 지적한다면서 백석의 초기시와 성석제의 소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한다.

김미혜, 「사회문화적 문해력 신장을 위한 방언의 교육내용 연구」, 『선택어문』 33, 서울대학교국어교육연구소, pp.416~419.

29) 장희권, 「문화연구와 로컬리티」, 『비교문학』 47, 한국비교문학회, 2009, 197.

“요노무 자숙, 굶어죽기가 정승하기보다 심들단다. 자, 일어나거라. 여래천서 목간(목욕)하고 집에 가서 국밥 먹어야제. 퍼뜩 몬 일어나나?”

—김원일, 「노을」, 31

나) 이렇게 되고 보면 고씨야 기다리고 있던 판이니 어린하겠습니까.

“나넌 아무쪼두 잘못된 것 읍어라우! 파리 족통만치두 잘못된 것 읍어라우! 팔자가 기구히여서 이런 징글징글헌 집으루 시집온 죄백으넌 아무 죄두 읍어라우! 왜, 절신했던 날 못 잡아먹어서 응을거려여? 삼십 년 두구 종질히여 준 보값음으루 그런대여? 머 내가 살이 이렇게 쪼으닝개루, 소징(素症)이 나서 괴기라두 뜯어 먹을라구? 에이! 지긋지긋히라! 에이 송악히라.”

신사(또는 숙녀)적으로 하는 파인 플레이라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하나가 말을 하는 동안 하나가 나서서 가로막는 법이 없고, 한바탕 끝이 난 뒤라야 하나가 나서곤 합니다.

“옳다! 참 잘 현다! 참 잘 히여. 워너니 그제 명색 머누리 체것이 시에비 더러 허넌 소리구만? 저두 그제, 메누리 자식을 둘씩이나 은어다 놓고, 손자 자식이 쉬엠이 나게 생겼으면서, 그제, 그제 잘 허넌 짓이여?”

—채만식, 「태평천하」, 78

방언의 효과를 특정 지역의 구어를 있는 그대로 문자언어로 재현했다는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에서 나아가 방언이 갖고 있는 ‘대상에 대한 생생한 충동’³⁰⁾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상에 대한 생생한 충동은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방언에는 억양, 예를 들면, 발음, 고저장단, 어조, 성조 등과 같은 억양이 잠재적으로 내재되어 있어, 실제 음성언어를 듣는 것과 같은 현전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이다. 가)와 나)를 읽을 때, 시각적으로는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고 하나하나 그 억양을 고려하여 읽을 때 비로소 그 의미가 들어온다. 문자언어로 표기해 놓은 방언은, 다른 문자언어와 같이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고, 암묵적으로나마 내적 발화의 단계를 거쳐야 이해가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하여 둘째로 문학텍스트의 방언은 그 잠재된 억양을 통해, 상황이나 독자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충동을 가진다. 독자는 말하는 인

30) M. 바흐진, 전승희외 역,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창작과비평사, 2005, p.102.

물과 직접 접촉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방언을 사용하는 것은 문어적인 대화체에 비해 직접 인물의 목소리를 듣는 듯한 현전감을 낳게 된다. 방언은 상황への 참여, 목소리의 현존을 통해 독자에게 가 닿으려는 생생한 충동을 갖고 있다.

대상을 향한 충동의 세 번째 의미는 방언이 발화되는 사회문화적 상황과 연관된다. 방언은 바흐찐이 말하는 다양한 언어의 층들—장르나 직업, 신분, 세계관이나 사조, 개성, 다양한 사회적 의미의 방언들³¹⁾—에 속해 있다. 즉 방언을 매개로 한 소통에는 시공간적으로 축적·응축된 다양한 표현들이 뒤섞이면서 그때그때마다 발화에 힘을 실어주는 동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방언으로 이루어진 대화의 상황은 방언의 다양한 표현과 억양에서 오는 힘으로 인해 상대방을 탐색하고, 조롱하며, 비난하는 복합적인 층위가 생생하게 재현될 수 있다. 다시 말해 화자의 의도—상대방은 설득하고, 화유하고, 비난하는 등—는 방언을 매개로 한 소통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언을 대상을 향한 충동의 효과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5. 결론

이 연구는 현대문학 및 문학교육에서 방언의 위상과 역할을 점검하는 작업에서 출발하여 방언을 통해 현대문학교육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는 것을 그 목표로 삼았다. 문학텍스트에는 방언 연구를 위해 문학텍스트를 그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삶의 현장에서 사용되는 방언이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기술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한 핵심은 문학텍스트에서 방언은 기표 차원에서 그 효과를 찾기보다는 방언의 기의, 즉 방언을 통해 가 닿고자 하는 세계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31) M. 바흐찐, 전승희의 역, 위의 책, p.110.

위해 방언이 문학텍스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중심으로 하여, 이를 문학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연결시키고자 하였다. 그 결과, 방언은 문학교육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발견, 사물과 세계에 대한 교감 능력 회복, 이데올로기 비판, 대상에 대한 지향성 등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방언으로 이루어진 대화 속에는 이질적이면서도 다양한 말들이 교차되면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대화에서 방언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어로 이루어진 대화보다 다성적인 느낌을 준다는 점과도 연관된다. 표준어로 이루어진 소설텍스트의 대화는 상당 부분 정제되어 있다. 정제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인물에 대한 작가의 통제력을 말해 주는 부분이다. 방언으로 된 대화가 산만하지만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그 대화의 내용이 작가의 말이 아니라 공동체의 말이기 때문이다. 방언으로 이루어진 대화를 추동해 나가는 힘은 공동체의 구성원에 대한 기억이라는 점에서 문학텍스트의 방언은 담화 안에 이질적인 말들이 어떻게 경합/결합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는 방언의 다성성과 관련된 부분의 논의가 충분히 못했다. 다양한 담화들이 상호텍스트성을 형성하는 양상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문학교육에서의 감상은 공감과 비판을 변주하면서 나아가는 과정이다. 방언을 매개로 한 문학교육 역시 문학텍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서, 분위기, 가치관에 공감하는 층위와 함께 거리를 두고 비판할 수 있는 안목이 결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언을 통한 문학교육의 가능성을 열려 있지만 방언에 대한 문화적 감수성 없이는 다가갈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주체-문학-문화를 연결하여 자리매김해 줄 수 있는 키워드로서의 방언을 활용하는 문제는 문학교육이 문화교육이라는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 본 논문은 2009. 6. 23. 투고되었으며, 2009. 7. 4. 심사가 시작되어 2009. 7. 26.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고형진(2004), 「방언의 시적 수용과 그 미학적 기능—영랑과 백석과 목월의 시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125, 동방학회.
- 권보드래(2002), 『한국 근대소설의 기원』, 소명출판, pp.136~144.
- 김미혜(2005), 「사회문화적 문해력 신장을 위한 방언의 교육내용 연구」, 『선청어문』 33, 서울대학교국어교육연구소, pp.416~419.
- 김수림(2007), 「방언—혼재향의 언어—백석의 방언과 그 혼돈, 그 비밀」, 『어문논집』 55, 민족어문학회.
- 김영철(2002), 「현대시에 나타난 지방어의 시적 기능 연구」, 『우리말글』 25, 우리말글학회.
- 김용직(1996), 「방언과 한국문학—문학작품에 나타난 방언의 문제」, 『새국어생활』 6, 한국국어교육학회.
- 김용현(2008), 「글읽기의 효용성에 관하여 : 문화간 소통 능력을 중심으로」, 『독일어문학』 43, 독일어문학회.
- 김용희(2004), 「‘몸말’의 민족시학과 민족 젠더화의 문제—백석의 경우」, 『여성문학연구』 12, 한국여성문학회.
- 문혜윤(2008), 『문학어의 근대』, 소명출판, pp.82~114.
- 박기현(2003), 「낭만주의 상상력 연구—코울리지와 보들레르」, 『불어불문학연구』 제56집, 불어불문학회, p.181.
- 박해광(2005), 「문화와 소통 : 전달모델에 대한 검토」, 『한국사회학대회논문집』, 한국사회학회, p.422.
- 심지현(2007), 「오영수 초기소설에 나타난 토속의 양상」, 『국어국문학』 145, 국어국문학회.
- 윤여탁(2004), 「문학교육에서 언어의 문제에 대한 연구—백석시의 언어와 세계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15, 문학교육학회.
- 윤영옥(2006), 「『소라단 가는 길』의 사회문화적 의미와 교육적 가치」, 『한국근대문학회』 14, 한국근대문학연구.
- 이근화(2008), 「백석시의 고유명과 조선시의 현장」, 『어문논집』 57.
- 이무용(2008), 「장소를 통한 문화의 소통 : 공간의 문화정치와 장소 만들기」, 『인문학연구』 14, 경희대학교인문학연구소.
- 이주행(2007), 『한국어 사회 방언과 지역 방언의 이해』, 한국문화사, pp.4~5.
- 이태준(2003), 『문장강화』, 깊은샘, p.36.
- 이혜령(2005), 「한글운동과 근대어 이태올로지」, 『역사비평』 71, 여름호, 역사비평사,

p.343.

임형택(2007), 「소설에서 근대 어문의 실현 경로」, 『대동문화연구』 58집, 성균관대학교대동문화연구, pp.36~39.

장일구(2005), 「호남방언과 서시문체—사회언어학적 시론」, 『한국문학이론과비평』 28,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장창영(2004), 「시어의 전략적 의미」, 『한국언어문학』 53, 한국언어문학회.

장희권(2009), 「문화연구와 로컬리티」, 『비교문학』 47, 한국비교문학회, p.197.

전봉관(2000), 「백석시의 방언과 그 미학적 의미」, 『한국학보』 98.

정구향(1995), 「한국현대시에 나타난 토속의 세계」, 『새국어교육』 51, 한국국어교육학회.

조춘희(2007), 「박목월 시의 문체론적 고찰」, 『한국문학논총』 47.

조대린(2004), 「계급언어, 지역언어로서의 표준어」, 『당대비평』 26, 생각의 나무, pp.82~83.

최경봉(2005), 『우리말의 탄생』, 책과함께, p.84.

황호덕(2003), 「한국근대형성기의 문학 배치와 국문 담론」,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p.22.

앤더슨, B.(2002), 윤형숙 역, 『상상의 공동체』, 나남출판, pp.73~76.

기든스, A.(1991), 이윤희외 역, 『포스트모더니티』, 민영사, pp.31~42.

바흐첸, M.(2005), 전승희외 역,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창작과비평사, p.102.

바슬라르, G.(2004), 이가림 역, 『물과 꿈』, 문예출판사, p.21.

푸안, Yi-Tu(1995), 구동희 역, 『공간과 장소』, 대운, p.16, p.220, p.226.

<초록>

방언과 현대문학교육

김혜영

이 연구는 방언이 가진 생활, 문화, 제도적 특성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에서 방언의 위상과 역할을 점검하고 방언이 문학교육의 내용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지역 방언으로, 지역 방언이 특정 장소의 역사와 삶의 맥락 속에 존재하면서, 사회문화적 소통을 지향하는 언어라는 점은 문학텍스트에 나타난 지역 방언의 위상을 점검하고 그 교육적 방향을 성찰하는 일이 문학교육에서도 중요한 문제임을 시사한다. 먼저 최근의 방언 연구의 경향을 통해, 방언과 표준어의 이분법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것을 유지하는데 작용하고 있는 메커니즘은 무엇인가의 문제, 곧 표준어가 근대 국가의 성립과 함께 구축된 가치중립적 시스템의 일부라는 점을 탐색해 보았다.

이를 토대로 문학연구 및 <문학>교과서에서의 방언 수용 양상을 점검하였다. 문학연구에서는 주로 방언 활용의 효과에 주목하여 있었는데, 방언의 효과로는 리얼리티, 토속성, 공감대 혹은 민족의식의 형성, 운율이나 이미지 효과 등이 논의되었다. 각각의 문학텍스트마다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가 다르고, 그 형식이나 표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문학텍스트에 방언이 활용되었을 때 얻게 되는 효과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는 이유로는 방언을 소리의 재현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았다. 방언은 특정 지역 안에서 성장한 주체를 문화적 주체로서 자리매김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역의 문화—지역 공동체의 담화 관습, 사회적 규범, 이데올로기 등—로 안내하기 때문에 방언은 소리 차원에서 사회문화적 맥락의 차원으로 확장되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문학교육의 목표를 구현하는 데 있어 방언이 작용하는 양상을 개인과 공동체의 발견, 사물과 세계에 대한 교감 능력의 회복, 이데올로기 비판, 대상에 대한 지향성 등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문학교육이 문화교육이라는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방언이 주체-문학-문화를 연결하는 키워드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문학교육을 문화교육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로서 방언이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핵심어】 방언 효과, 문학 교육, 문화 교육, 소리의 재현, 방언과 표준어의 이분법

<Abstract>

Dialect and Education of Modern Literature

Kim, Hye-Young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status and functions of dialect in modern literature and to look for a possibility that dialect can be adapted to education of literature based on living, cultural and systematic characteristics. First through the current trend of dialect research, we have investigated how the dichotomy to divide dialect and standard language has started and which mechanism contributes to maintaining it, and from the result of that investigation, we checked how dialect has been adapted in the research on literature and its text book up to now.

In the research on literature, generally effectiveness of dialect adaptation, one of which is the pursuit of realism, locality, empathy or inspiration of nationalism, rhythm and imagery effect, etc. Although each text of literature has different theme to convey and different style and expression, the result when dialect is applied to literature texts is almost the same for the reason that it reflects the viewpoint that dialect is regarded as manifestation of sound.

Finally studying the aspect of how dialect functions in materialization of the goal of literature education such as discovery of individuals and community, recovery of capability to communicate with things and the world, analysis of ideology, target orientation, etc, we also suggested the direction to practice the ideology of literature education. We believe that this process will enable dialects, as a key word to connect subject to literature to culture, become a vehicle in order that literature education settle down as a part of cultural education.

【Key words】 effectiveness of dialect, literature education, cultural education, manifestation of sound, dichotomy of dialect and standard language

【토론문】

“방언과 현대문학교육”에 대한 토론문

선주원(광주교육대학교)

이 연구는 방언이 가진 생활, 문화, 제도적 특성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에서 방언의 위상과 역할을 점검하고, 방언이 문학교육의 내용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쉽지 않은 주제로 문학교육에서 지금까지 거의 논의되지 않은 새로운 담론을 생산하신 선생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 연구는 지역 방언을 대상으로 삼아, 방언의 사회문화적 소통에 초점을 두어, 현대문학에서 그것들의 효과와 문학교육적 방안을 밝혔다. 이를 위해 방언의 문학적 효과를 ‘리얼리티의 심화’, ‘토속성의 재현’, ‘기법 층위의 분화’로 나누었고, 방언을 통한 문학교육의 모습을 ‘개인과 공동체 의식 회복’, ‘사물과 세계에 대한 교감 능력 회복’, ‘이데올로기 비판 교육’ 등으로 나누어 논의를 전개하였다.

전체적으로 선생님의 논의에 공감하면서도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을 제기한다.

첫째, 연구의 범위를 지역 방언에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한다는 전제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후반부에 가면 계급방언을 전제한 관점들이 다수 나오는데, 이러한 혼란상이 바로잡혔으면 한다. 예를 들어, 방언을 통한 문학교육을 논의하는 부분에서 ‘이데올로기 비판 교육’은 지역 방언을 토대로 한 논의이기보다는 계급방언을 토대로 한 논의라는 생각이 든다.

둘째, 3장에서 문학연구 및 <문학>교과서에서 방언 수용 양상을 점검하면서, 방언의 문학적 효과를 논의했는데, 이러한 효과가 어떤 근거에서 범주화되었는지 분명치 않은 것 같다. 아울러 토속성이 리얼리티의 심화

와 따로 분리되어 논의될 수 있는 범주인지도 궁금하다. 그리고 기법 층위의 분화 논의도 ‘미적 효과의 측면’을 밝힌 것인데, 이러한 논의가 어떠한 기법 층위를 어떻게 분화시켰는지가 분명치 않다.

셋째, 방언을 통한 문학교육을 논의하는 부분에서 밝힌 것들, 즉 ‘개인과 공동체 의식 회복’, ‘사물과 세계에 대한 교감 능력 회복’, ‘이데올로기 비판 교육’ 등이 방언을 통한 문학교육의 내용 차원을 밝힌 것인지, 교육의 지향점을 밝힌 것인지, 학습자의 학습 결과를 밝힌 것인지 등이 모호하다. 토론자의 생각으로는 방언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강조한 문학교육은 그러한 맥락의 층위와 효과를 분명히 밝히고, 이것들에 의해 교육의 내용을 구안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한다.

넷째, 방언을 통한 문학교육을 ‘개인과 공동체 의식 회복’의 측면에서 논의한 11쪽 네 번째 문단과 다섯 번째 문단은 방언을 통한 개인의 의식 회복을 밝히고 있지만, 좀 더 분명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논의가 선명하게 이해되지 않는 것 같다.

좀 더 꼼꼼하게 읽고 생산적인 논의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글게 읽고 토론에 임한 토론자의 게으름을 이해하시고, 혹 오독의 부분이 있었다면 바로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쉽지 않는 주제로 고생하신 연구자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